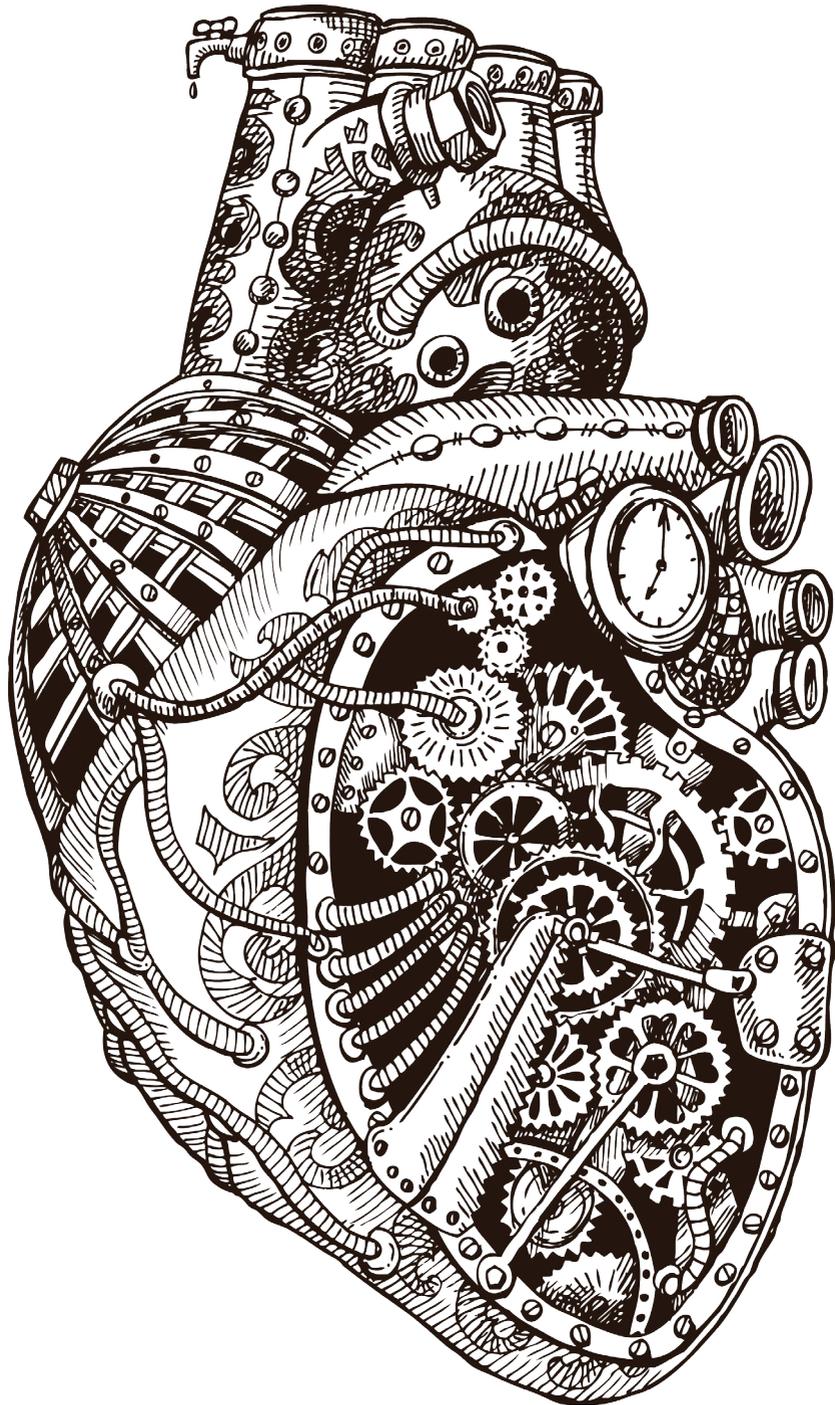


HYUNDAI MOTORSTUDIO AR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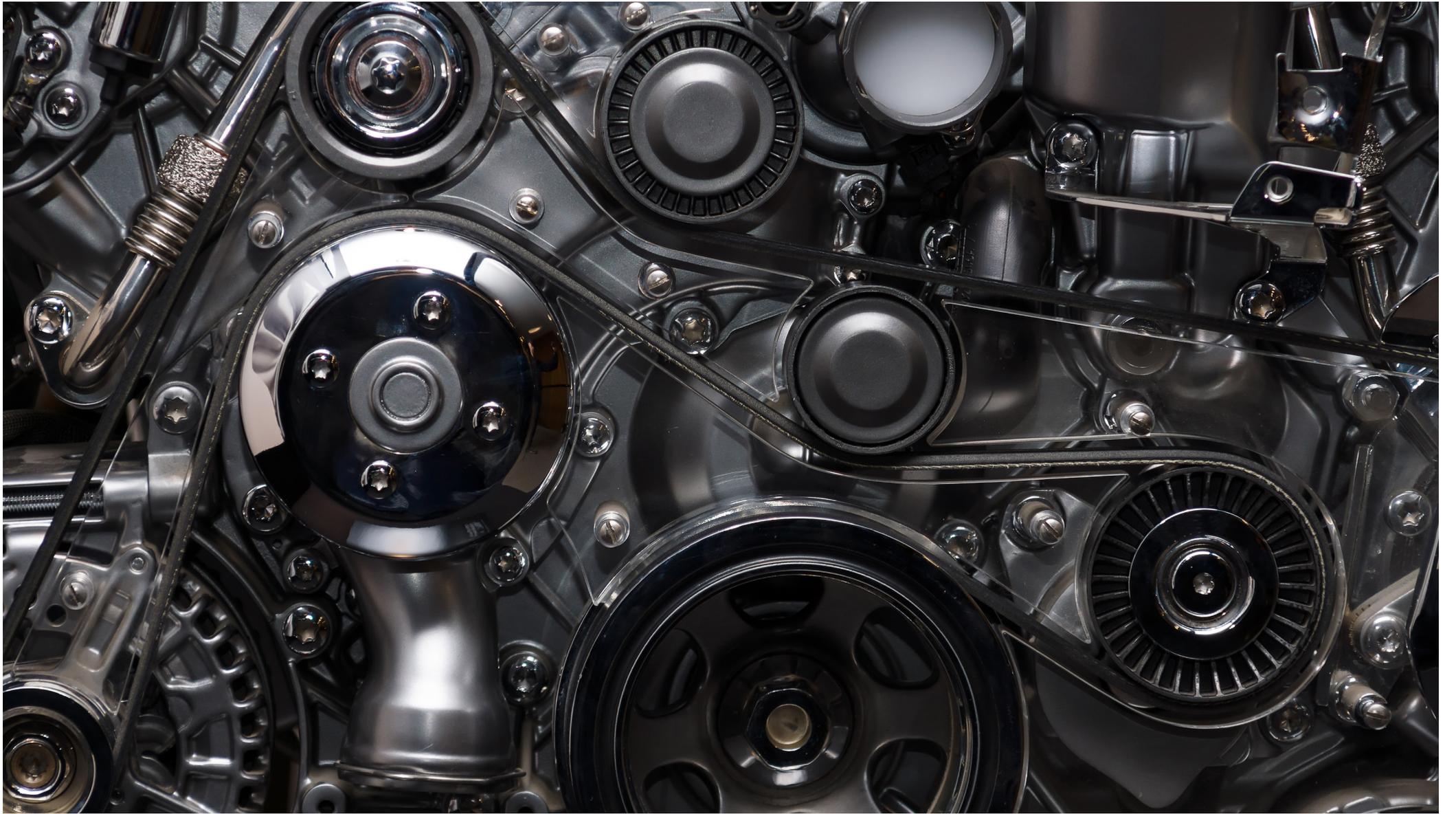
EVERYWARE
ENSEMBLE (2015)



복잡한 기계는 아름답다.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정교하게 들어맞아 한 부품의 움직임이 다른 부품으로 복잡하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된다. 플루트 솔로의 선율을 바이올린 파트가 이어받아 브라스와 화음을 이루는 동안, 베이스와 팀파니가 낮은 소리로 중심을 잡아 주고, 마침내 모든 악기가 웅장한 하모니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연상시킨다.

복잡한 기계가 주는 감동의 정체는 수많은 개체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통일된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절묘한 앙상블에 대한 경이로움이다. 인체의 해부도감을 펼쳐 들었을 때, 천체망원경을 통해 거대한 우주를 처음 바라보았을 때, 손목시계 무브먼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끼는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 찬찬히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복잡한 기계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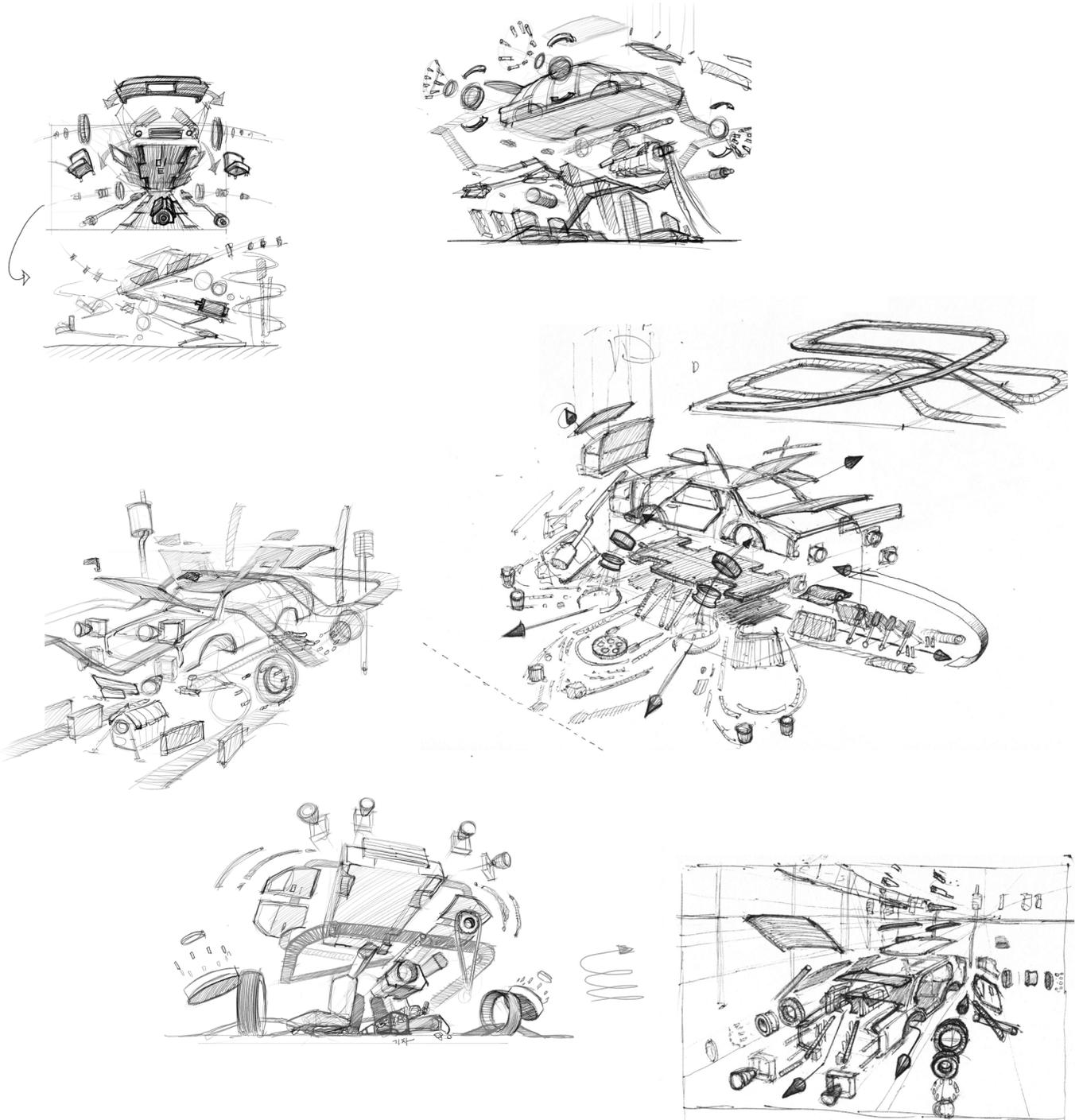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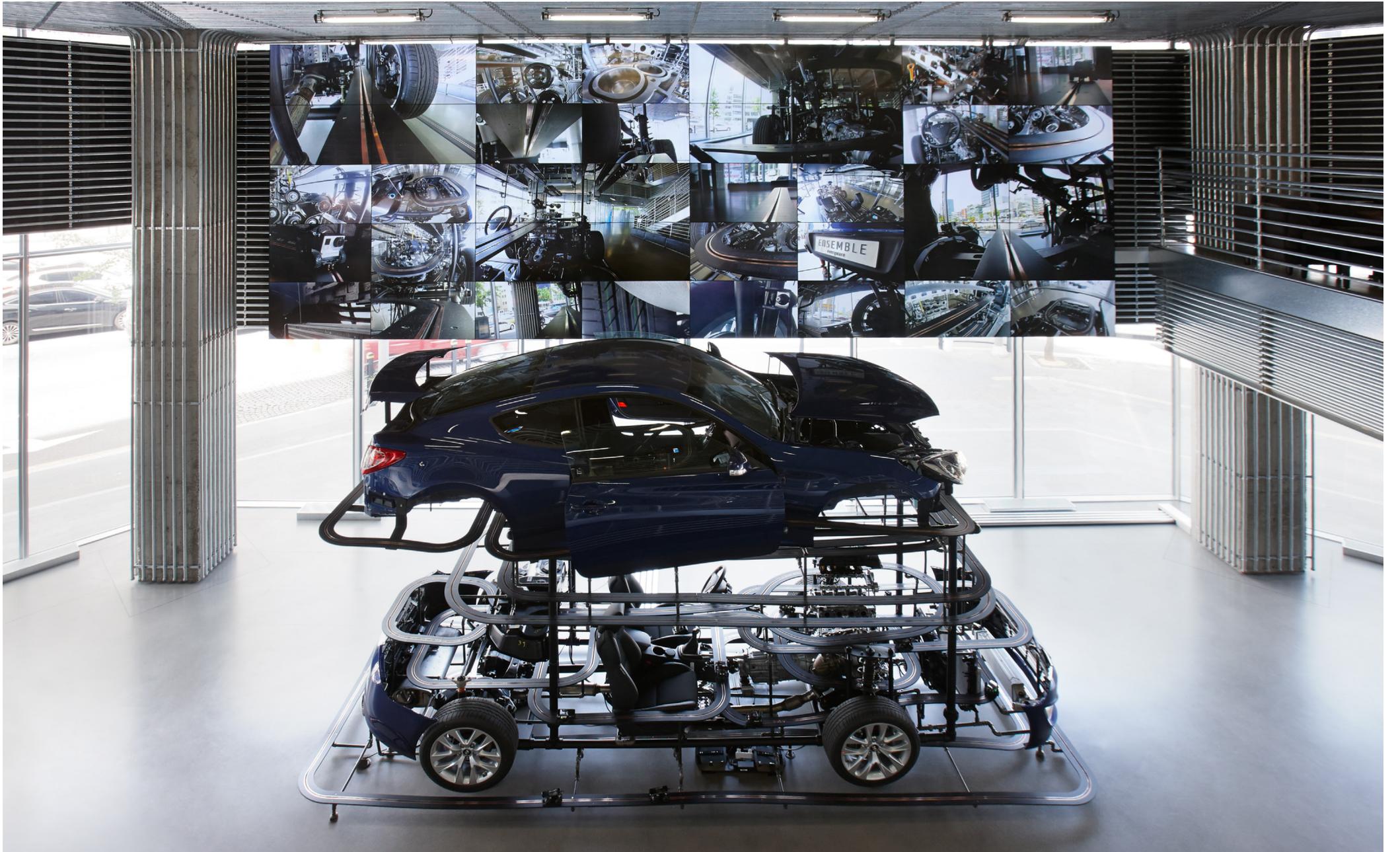
앙상블 ENSEMBLE (2015)

자동차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되어 돌아가는 복잡한 기계의 전형이다. 어지러운 만큼 수많은 부품들이 서로 얽혀 돌아가는 모습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관처럼 신비롭고, 기계들이 닮고 헝거워지면서 힘차던 옛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이 모든 생명들의 숙명처럼 애뜻하다. 수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이 엔진을 심장에, 타이어를 튼튼한 다리에 비유하며 특별한 애정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매끈한 외장에 가려져 있던 자동차 본연의 기계미에 주목한다. 자동차는 마치 폭발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산산조각나 그대로 멈추어지고, 각 부품의 사이사이를 복잡하게 얽힌 배관 자재들이 고정하고 있다. 타이어는 천천히 구동되는 엔진과 맞물려 돌아가고, 관람객들은 자동차의 내장 구성구석을 맨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자동차의 안팎을 복잡하게 휘감고 있는 미니어처 도로 위에,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들처럼 작은 모형차들이 카메라를 싣고 거대한 기계의 구성구석을 탐험하고 있다. 모형차들이 전송하는 영상들은 벽면의 미디어월에 투사되어, 관객들은 일반적으로 경험 할 수 없는 독특한 시점으로 자동차를 바라보게 된다. 웅장한 건축물처럼 엔진을 올려다 보고, 차도 바닥의 시점에서 달리는 타이어를 바라보는 드라마틱한 시점의 전환은 복잡한 기계 요소에 대한 우리의 흥미와 애정을 환기할 것이다.





© 2014 BMW Group. All rights reserved. BMW, the BMW logo and the BMW roundel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BMW Group. The BMW logo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BMW Group. The BMW roundel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BMW Group.

Everyware

[Everyware]
52 Teheran-ro 13 gil,
Gangnam-gu, Seoul

[Concept Development]
Hyunwoo Bang
Yunsil Heo

[Main Construction]
Jeonghyun Bang
Samwook Heo
Yongoh Joh
Jeongmin Cha

[Mini Car Development]
Wonjoon Oh
Kyungeun Min

[Video Documentation]
Hyegyong 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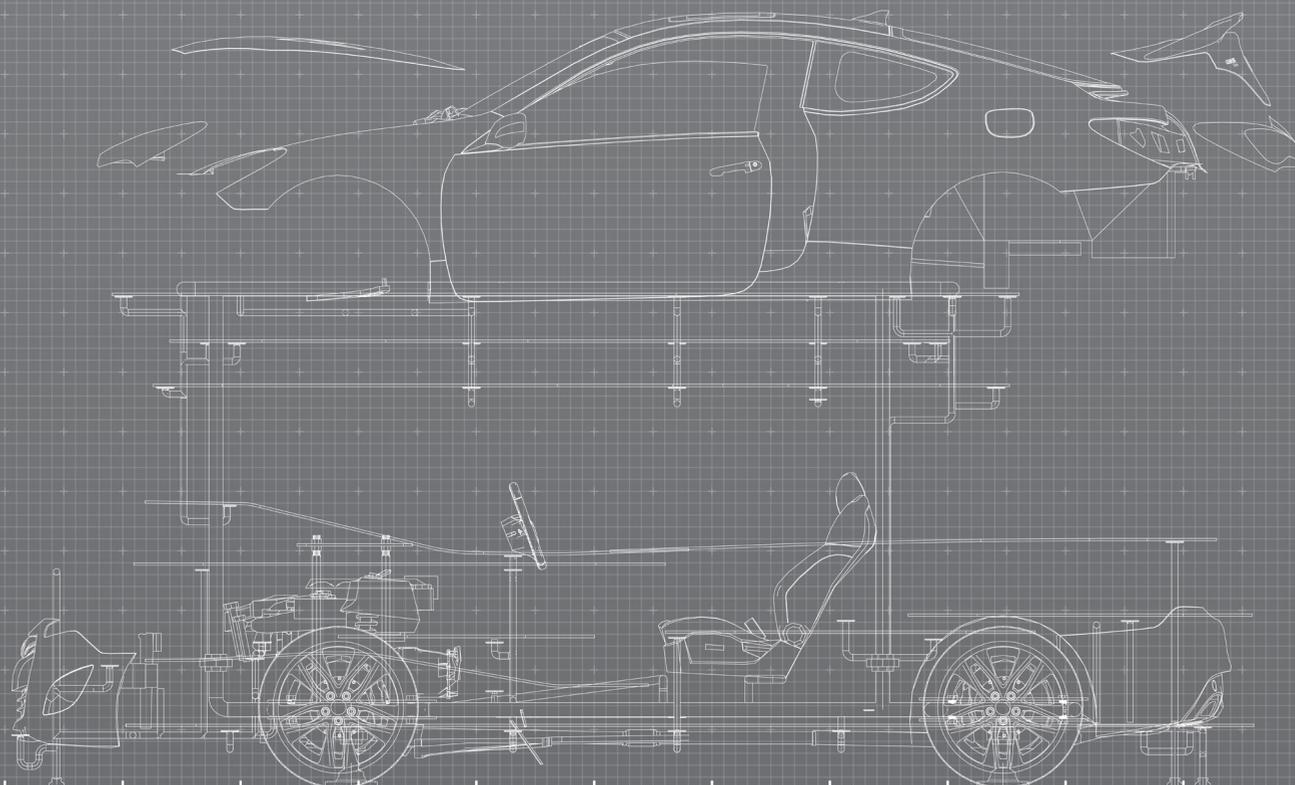
[Client]
Hyundai Motor Studio
738 Eonju-ro,
Gangnam-gu, Seoul

[Project]
Ensembl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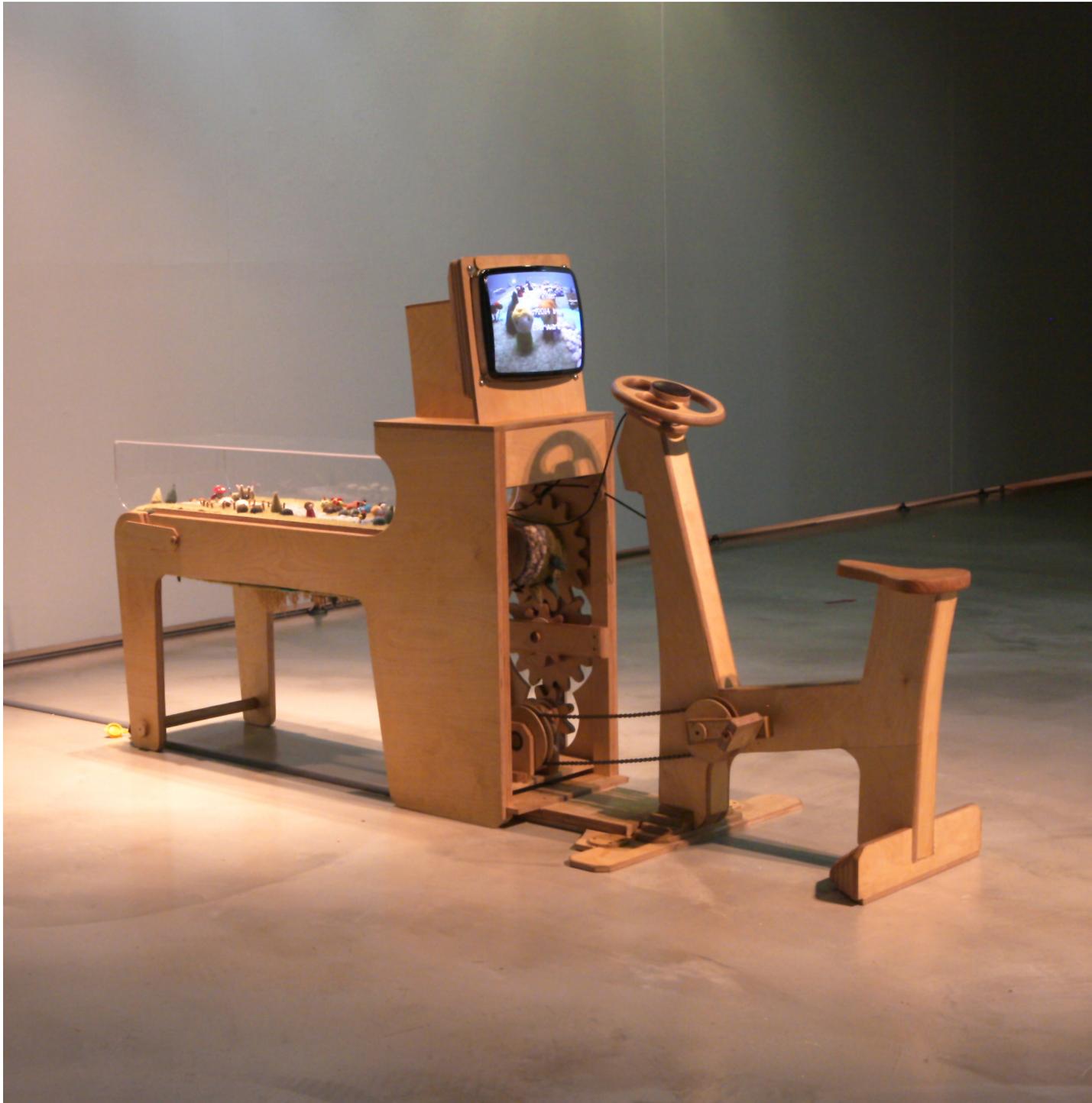
[Issue]
April 16, 2015

[Fence Installation]
April 26, 2015

HYUNDAI
MOTORSTUDIO
SEOUL



Ensemble



넛츠 라이더 (Nuts Rider) (2014)

약력 BIOGRAPHY

Everyware는 방현우와 허윤실이 2007년에 결성한 미디어 아트 작가 그룹이다.

방현우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학부, 박사를 졸업하고 동 학부의 조교수로 재직했다. 허윤실은 UCLA의 Design | Media Art에서 석사를,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학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접점에서, 현실이 가상세계와 자연스럽게 만나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긴장감과 이야기거리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everyware가 탐구하는 테마이다.

이들의 작품은 2008, 2011, 2013, 2014년 SIGGRAPH Art Gallery를 비롯하여, Ars Electronica Center(오스트리아), 동경 국립 미술관(일본), Disseny Hub Barcelona(스페인), 그리고 Victoria & Albert Museum(영국) 등 여러 갤러리와 뉴미디어 축제에 초대되었다.

<http://everyware.kr>



메모리얼 드라이브 (Memorial Drive) (2014)

HYUNDAI MOTORSTUDIO ART PROJECT

EVERYWARE
ENSEMBLE (2015)

